통합대학으로 제2의 건학을 준비하는 경원대학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0월 17일 경원대학교와 경원전문대학의 통합 승인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4년 8월31일 대학 구조개혁 방안 발표 이후 단일 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대학 통합이다. 2002년 처음으로 양 교의 통합 논의가 시작된 이래 지난 4년간 심층적인 협의를 진행해 온 양 대학의 통합이 성사돼 2007학년도 수시모집부터 통합 대학교의 신입생을 모집하게 됐다. 구조개혁 방안 발표 후 최대 규모인 1877명의 입학 정원 감축을 통해 동일권역 동일법인 하의 2개 사립대학이 통합됨으로써 특성화 기반 구축, 교육여건 개선, 대학 경영의 효율성 개선 등의 구조개혁 성과를 누리게 됐다.

교양대학과 자율전공학부 설치

통합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통합으로 경원대학교 54개 학과 · 전공(36개 학과, 18개 전공), 경원전문대 46개 학과 등 현행 총 100개 학과 · 전공이 63개 학과 · 전공으로 통폐합됨으로써 37개 학과 · 전공이 감축되게 된다. 이에 따라 학과 중복에 따른 운영 비용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갖게 되었다. 또한 행정 조직도 통폐합해 13개 단위 조직이 축소됨으로써, 통합 시너지를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 함께 기존 학과 개념의 벽을 과감하게 허무는 자율전공제의 도입, 학부제의 확대 실시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교육체계 확립과 더불어 학생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게 된다. 한편, 교양학부는 교양대학으로 승격시켜 인문학과 자

연과학 등 순수학문 중심으로 폭넓은 교양교육을 실시하며, 학생 선택 폭을 넓혀 주기 위해 교양대학 산하에 자율전공학부도 설치했다. 자율전공학부는 입학 시 전공을 지정하지 않고 1년간 수학 후, 본인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전공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사회 수요에 따라 입학 정원을 자연스럽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통합은 교육의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있다. 경원대학교는 2009년까지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90여 명의 교수를 채용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충원될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은 현재 48.7%에서 63.5%로 크게 높아지게 되어 있고, 이와 함께 시대 변화에 따른 커리큘럼 혁신 작업도 동반함으로써 인적 인프라 및 교육 콘텐츠를 동시에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이번 통합을 계기로 초현대식 기숙사 건립과 더불어 현재의 정문과 구 대학 본관 일대 2만 5천 평 부지에 최첨단 11층 빌딩을 신축하는 이른바 '정문지구'를 통해 교육 시설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정문지구는 각종 학과시설, 도서관, 초대형 컨벤션센터, 스카이라운지, 종합검진센터, 헬스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로써 경원대학교는 경원대학교 재학생은 물론 성남지역민의 종합 문화 웰빙 공간이 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의 중앙도서관 맞은 편 1만 5천 평 부지에는 학생회관, 교수회관, 종합과학관 등 5개 시설이 들어설 계획도 갖고 있어, 통합 이후 경원대학교의 모습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통합 경원대학교, 'G2+N3' 발전 프로젝트 시동을 걸다

'둘에서 하나로! 하나에서 세계로!'

판교-송파 신도시벨트 정중앙에 자리잡은 신교육의 중심 경원대학교가 2007년 3월 경원전문대학과의 통합을 계기로 제2건학을 선언했다. 지난 10월16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통합 승인을 받아 2007학년도 수시모집부터 통합대학교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경원대학교는 '덕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이란 새 교육 이념 아래 'G2+N3'라는 학교발전 프로젝트를 대내외에 선포했다.

'G2+N3'는 향후 10년 안에 2개 학과를 세계 최고 수준(G:Global Top)으로, 3개의 학과를 국내 최고 수준(N:National Top)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경원대학교의 야심찬 계획이다.

특성화의 첫 번째 축은 BT, IT, NT의 3T 첨단학문 기술 분야를 의미하는 'BINT'의 연구 및 상용화이다.

경원대학교는 나노입자기술혁신센터와 경기도 신소재연구소를 기반으로 BT와 IT를 연계하여 '헬스케어'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성과를 거둔다는 계획을 수립했

다. 건립 예정인 바이오 관련 연구소를 중심으로 공대생명공학부와 소프트웨어 · 전자통신대학이 공동으로 이를 추진할 예정이다.

- 통합 경원대의 구체적 특성화 분야는 BT, IT, NT 융합연구 분야의 수많은 소재 중 '헬스케어'이며, 통합 실행 과정에서 이 분야 연구 및 교육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구체적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바이오연구소를 곧 설립할 계획이다. 경원대학교는 산업자원부가 지원하는 총 연구비 62억 원 규모의 '2005년도 u-Healthcare 경기도 지역 특성화 사업'의 주체로 선정된 바 있다.
- 특성화와 연구 투자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IT, NT관련 핵심 전공들을 하나의 단과대학에 집중시켜 소프트웨어 · 전자통신대학을 만들었으며, 공대 생명공학부와 모(母)재단인 가천길재단 소속 뇌과학연구소(소장 조장희 박사)와의 연계 연구를 적극 추진한다.
- 경원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부는 반도체 핵심인 나노 입자와 신소재 분야 비교우위로 삼성전자에 매년 13~15명이 입사하는데, 반도체의 기반 기술인 IT를 학사편제로 결합시켜 보다 확실한 특성화를 유도했다. 이를 바탕으로 '헬스케어'의 기반이 되는 나노 바이오의 구체적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뇌과학연구소

- IT, BT, NT를 연계한 경원대학교 헬스케어 특성화의 기반은 강남 · 분당 · 잠실 · 송파 · 용인 등 인근 지역의 고급 의료 수요와 모재단격인 가천길재단 소속 뇌과학연구소의 든든한 인프라 등이다.
- 판교와 송파 신도시, 분당 벤처단지에 인접한 지리적 입지를 최대한 활용, 미래 산업 거점인 이들 핵심 지역의 '싱크탱크'로서 핵심 기술 및 인력 제공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하고 산 · 학 · 연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학교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 뇌과학연구소 개소식

특성화의 또 다른 축은 교양교육, 기초학문 분야의 강화이다. 이는 덕성과 봉사 정신이 없는 인재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국가와 공동체에 기여할 수 없다는 경원대학교의 교육철학에 입각한 것이다.

이에 경원대학교는 교양대학을 신설, 교양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학문과 예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지원을 할 것이다. 인문과 예술분야 중에서도 특히 디자인학과와 중국학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시대에 정체된 환경에서는 일류가 될 수 없다. 이에 단순한 국내용 인재가 아닌 국제적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먼저 대학이 글로벌 명문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게 경원대학교의 논리다. 경원대학교는 통합 완성연도인 2010년까지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90여 명의 교수를 채용해 교수 비율을 높이고, 시대 변화와 산업계의 요구에 걸맞은 커리큘럼의 혁신을 통해 인적 인프라와 교육 콘텐츠의 고급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이 구축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2015년까지 전문지식과 덕성을 두로 갖춘 해당 분야의 고급인재를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성남시의 새로운 랜드마크 '경원대 정문지구'

성남시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경원대학교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이지만 환경적으로는 국내 대학 중 최고의 요지에 자리하고 있다. 반경 20Km 이내에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리고 분당이 인접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판교 신도시와 송파 신도시는 경원대학교와 바로 이웃하고 있어서 통학거리상으로 볼 때 국내 최고의 노른자위에 경원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원대학교는 통합대학 출범과 함께 캠퍼스 인프라의 고급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 정문지구 조감도

초현대식 기숙사 건립과 더불어 현재의 정문과 구 학교 본관 일대 2만 5천 평 부지에 첨단 11층 빌딩을 신축, '정문지구'를 구축해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정문지구는 학과시설과 사회교육원, 학생회관, 도서관, 컨벤션센터, 스카이라운지, 종합검진센터, 헬스센터, 체육관, 유치원 등이 들어서 경원대학교 재학생은 물론 성남시민들의 종합 웰빙문화 공간이 될 전망이다. 정문지구는 부지면적 8만 5천 5백 평, 건축 면적 1만 4천 2백 평, 연면적 7만 5천 531평이며, 2007년 3월에 착공해 2009년 말에 완공 예정이다.

각종 최첨단 편의, 문화시설과 더불어 경원대 전철역과 연계돼 향후 성남 구시가의 실질적인 중심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현재의 중앙도서관 맞은 편 1만 5천 평 부지에는 학생회관, 교수회관, 종합과학관 등이 들어선다. 현재 추진 중인 '그린캠퍼스' 플랜과 더불어 건축공사가 완료되면 캠퍼스 지도의 삼분의 일이 바뀌어 학교의 외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경원대학교는 이렇게 개선된 교육환경을 기반으로 경원대 맞춤형 고급인재를 키워낼 계획이다.

■ **통합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 길 여 (경원대학교 총장)

국내 · 외의 교육환경 변화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국내 교육환경의 변화를 보면 수험생 감소와 대학 수의 역비례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돼 이를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 수는 202개, 전문대학 수는 157개입니다. 이에 반해 수험생 수는 2001학년도 88만여 명에서 2006학년도에 58만 명으로 줄었고, 2007학년도에는 55만여 명으로 감소가 예측됩니다. 이대로라면 향후 10년 안에 수험생 수가 40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학 수는 수험생 수가 100만 명 시대의 수가 그대로 있습니다. 대학도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수요자인 학생 수가 없으면 문을 닫아야 하지요.

또 하나는 국내 산업 환경의 변화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사회에서 인정받고 필요로 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지 않고서는 양질의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외적인 이유는 앞으로 대학에서는 글로벌마인드와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지 않고서는 대학의 사명을 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국내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경쟁시대이기 때문에 통합을 통해 이를 타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10년 내에 'G2+N3'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G2+N3' 육성은 앞의 질문과 연장선에 있습니다. 전공 또는 학과를 특성화시켜 세계 정상급 2개, 국내 정상급 3개를 중점 육성하겠다는 전략에서 나온 것입니다. 최종 5개 분야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IT를 기반으로 BT와 NT 분야를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더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 드리면 BT 등 3개 분야를 미래에서 가장 촉망받는 헬스케어산업과 연계하여 상품 실용화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합니다.

우리 대학은 NT시스템이 좋습니다. NT에 의공학과 헬스케어산업 분야를 접목한 의생체칩 상품 개발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천길재단 산하에 있는 가천의과학대학교의 뇌과학연구소는 연구진도 시설도 세계 최상입니다. 인천 송도에 곧 세계 수준의 생명공학연구소도 문을 엽니다. 같은 재단의 경원대학교에 교육 및 연구시스템을 잘 갖추면 얼마든지 호환연구가 가능합니다. 뇌 영상과학 연구도 일종의 헬스케어산업 분야 연구지요.

매년 1백 명씩 장학금을 주어 중국 산동대에 학생을 파견 유학 보내는 것도 중국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이고, 여기에 디자인교육의 강점을 활성화시키면 'G2+N3' 육성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 **통합대학교 특성화 부문으로 헬스케어산업 분야를 선정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장래성 있는 학문 분야고, 졸업생의 취업도 좋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붐 시대가 고령화되면서 부유 노인층이 증가하여 헬스케어 관련 지출이 소득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 분야도 포함되어 있지만, 2004년도의 미국시장만도 총 1조 6천억 달러였습니다. 반도체 전체 시장이 2천 130억 불이니까 그 시장 규모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산업은 건강과 관련된 모든 첨단장비와 시설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헬스케어산업 분야가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것은 RFID(전자테크)및 인터넷상거래가 확산되면서 의료와 관련된 고급 정보가 제공되어 그렇습니다. UB-쿼터스도 헬스케어의 한 장르이지요.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대학에서 분야를 잘 설정하여 학생을 가르치면 취직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것도 양질의 첨단직업이지요. 연구 결과가 곧바로 돈이 되고, 이익금이 학교로 들어오면 연구력과 교육의 질은 저절로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원대학교는 수도권에서도 위치가 좋아 고급병원이 많고, 지역과 연결된 R&D센터도 많아 산학협력체제를 이루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양학부에서 교양대학으로 확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학은 모든 공동체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교양인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미국은 대학의 학부교육 전체를 교양인을 만들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봅니다. 교양교육은 겸손, 인간애, 해학이라는 3가지 특징을 부여합니다. 미국 대학의 총장들은 졸업식 때 "교양인으로서 남녀공동체가 된 것을 환영한다."로 축사를 시작합니다. 3학년부터 하는 전공 공부도 사회생활을 위한 일종의 교양으로 보고, 진정한 글로벌인재는 풍부한 교양을 갖추어 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우리 대학이 목표로 하는 '덕목을 갖춘 글로벌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교양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단과대학으로 승격시킨 것입니다. 학생에게 폭넓은 시야와 균형 잡힌 이성, 예리한 비판의 눈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 2010년까지 교수 100여 명을 새로 채용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 교수를 뽑는가요. 또 경원전문대학 교직원의 거취는 어떻게 됩니까?

신임교수 채용은 대학의 특성화 방향과 수업의 질 향상에 맞출 생각입니다. 젊고 연구력이 뛰어난 인재를 뽑는 데 대학의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지요. 연구력이 좋다고 해서 학생을 잘 가르치는 것만은 아니지만, 대체로 연구력이 양호한 교수는 학생도 잘 가르친다고 생각됩니다. 요약을 하면 '덕성을 갖춘 글로벌인재'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경원대학교와 경원전문대학의 통합은 1대1 개념입니다. 따라서 전문대 교직원은 전원 통합대학교에 합류하게 되죠.

■ 정문지구 개발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며, 초현대식 기숙사에는 어떤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지요?

한마디로 경원대학교와 성남시의 '랜드마크'가 될 첨단 빌딩입니다. 시설 일부는 지하에 들어서기 때문에 지하 캠퍼스 구축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정문 주변 2만 5백 평 부지에 이 빌딩을 지어 학교의 주요 동선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학교 시설 혁신' 사업이기도 합니다. 고려대학교 등 몇 학교가 이미 학교 혁신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정문지구는 학과 시설과 도서관, 컨벤션센터, 스카이라운지, 종합검진센터, 헬스센터 등의 시설이

들어서 경원대학교 재학생은 물론 성남시민들의 종합 웰빙문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학교와 시민 간의 의사소통 공간, 학술문화교류의 공간으로 자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 총장장학금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됩니까?

제가 이끄는 가천길재단의 이념이 '박애 · 봉사 · 애국'이고 이걸 모두 합친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헛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이를 학교 경영의 엔진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 제 월급과 판공비를 다 받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리더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학생들이 저를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직이 변화하거나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은 따지고 보면 모두 사랑의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 변혁기를 맞고 있는 경원대학교에는 무엇보다 전체 구성원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절실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하나씩 실천해 갈 것입니다.

■ 1998년 가천의과학대학교를 설립하시고 그 해 말에 바로 경원대학교를 인수하는 등 교육사업에서 잇따라 큰 성과를 내면서 뚝심과 추진력을 인정받고 계신데, 교육사업의 큰 밑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계십니까?

▲ 조장희 박사

가천길재단 산하에 가천의과학대학교, 가천길대학, 경원대학교, 경원전문대학, 신명여자고등학교 등 다섯 개의 학교가 있었는데 지난해와 올해 잇따른 통합으로 가천의과학대학교, 경원대학교, 신명여자고등학교 등 세 개로 줄었습니다. 이제 철저하게 내실을 추구할 것입니다. 뭔가 한 분야라도 세계 최고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통합한 가천의과학대학교를 MRI와 PET 등 의료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만들기 위해 조장희 박사를 영입해 뇌과학연구소를 설립했고, 앞으로 경원대학교도 이에 버금가는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저는 일단 맡았다, 만들었다 하면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이제 경원대학교도 발전의 밑그림이 그려졌으니, 학교가 현재 보유한 인적 · 물적 자원과 더불어 가천길재단에 있는 모든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열심히 뛰면 구성원들도 잘 따라줄 것입니다. 저는 경원대학교의 명문 도약을 확신합니다.